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한진아(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주요 FTA 대상국별 수출입 품목

양승희(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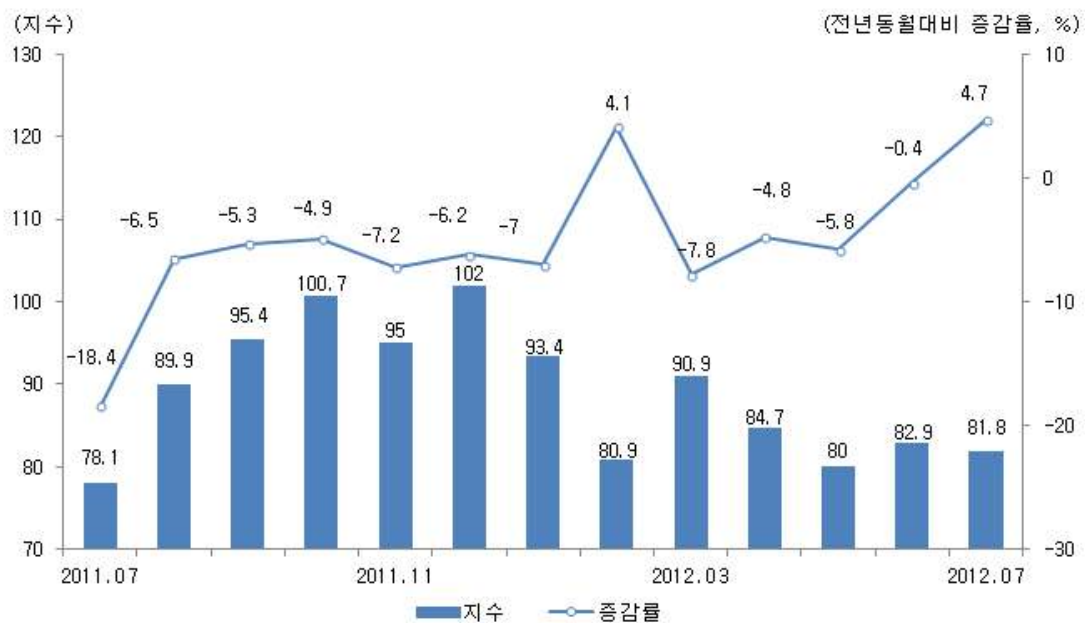
소비	서울의 7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1%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달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백화점의 경우 패션용품이 54.2%, 대형마트는 식품 56.5%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부문별 판매액은 패션용품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권역별로는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울의 7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보험세를 이어가는 등 고용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 보험 등 취업시장이 지난달에 이어 현상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연령별 취업자 중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취업자 연령별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물가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으로 5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상승세를 보인 항목은 생선,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으로 3.1% 상승하였고, 생활물가지수는 1.1% 상승하였다.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어 3개월 연속 보험세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강남지역 특히 강남3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및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 생 · 산 |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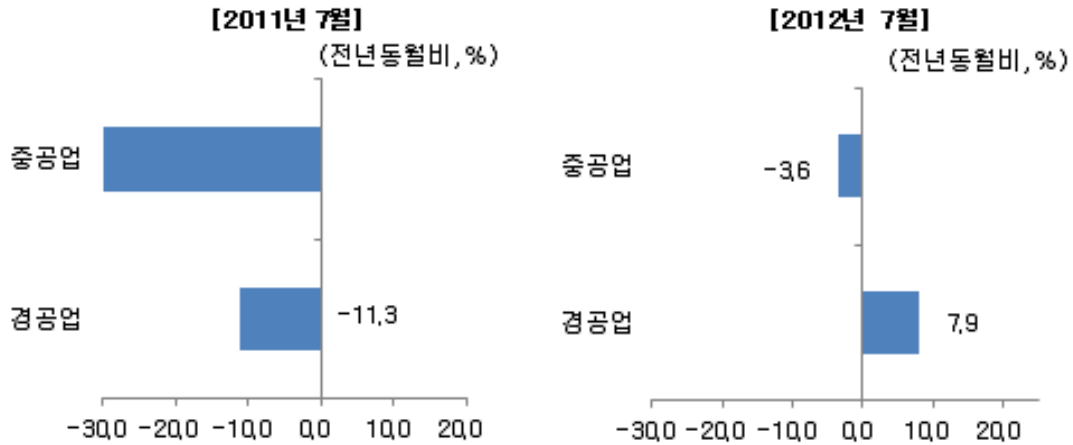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플러스 성장세

-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81.8(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중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7.9% 증가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41.6%), 인쇄 및 기록매체(16.7%) 증가하였고, 전기장비(-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공업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경공업 부문의 증가로 5개월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2.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제조업 생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자동차(-6.2%), 기계장비(-2.6%), 비금속광물(-8.2%) 등에서 각각 감소
- 반면, 반도체 및 부품(1.9%), 화학제품(4.7%), 1차 금속(2.8%) 등은 각각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3.8%), 교육(-1.1%) 등에서 감소, 보건, 사회복지(7.0%), 금융보험(1.9%) 등의 증가로 1.5% 증가

| 출하·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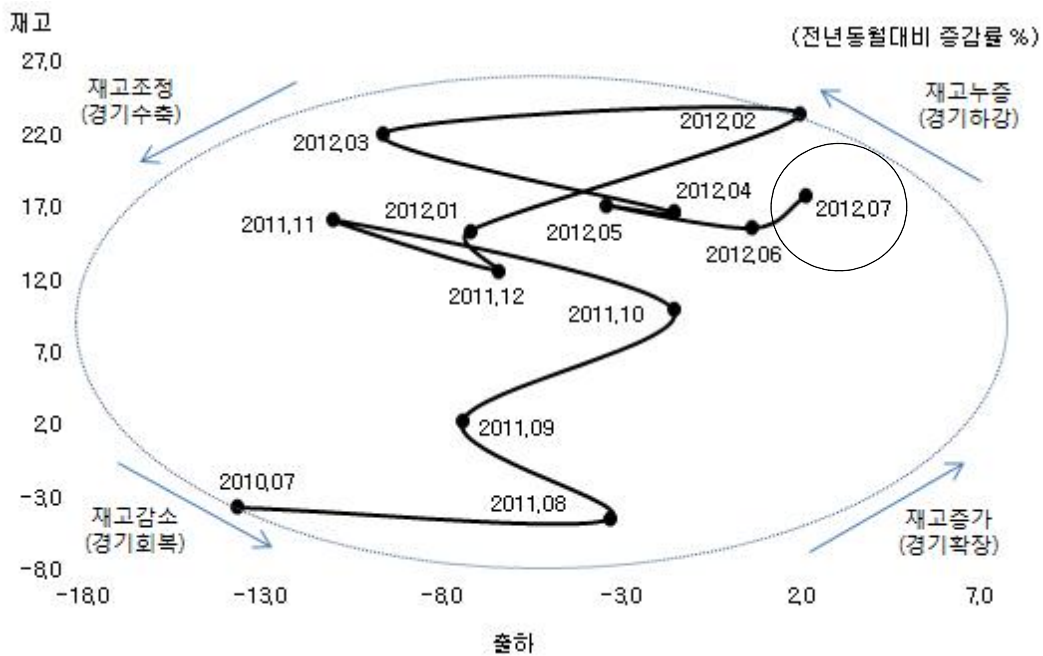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제조업 경기확장 단계

■ 서울의 7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및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7월 재고지수는 185.5(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
- 서울의 7월 출하지수는 78.1(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출하 및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비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을 중심으로 증가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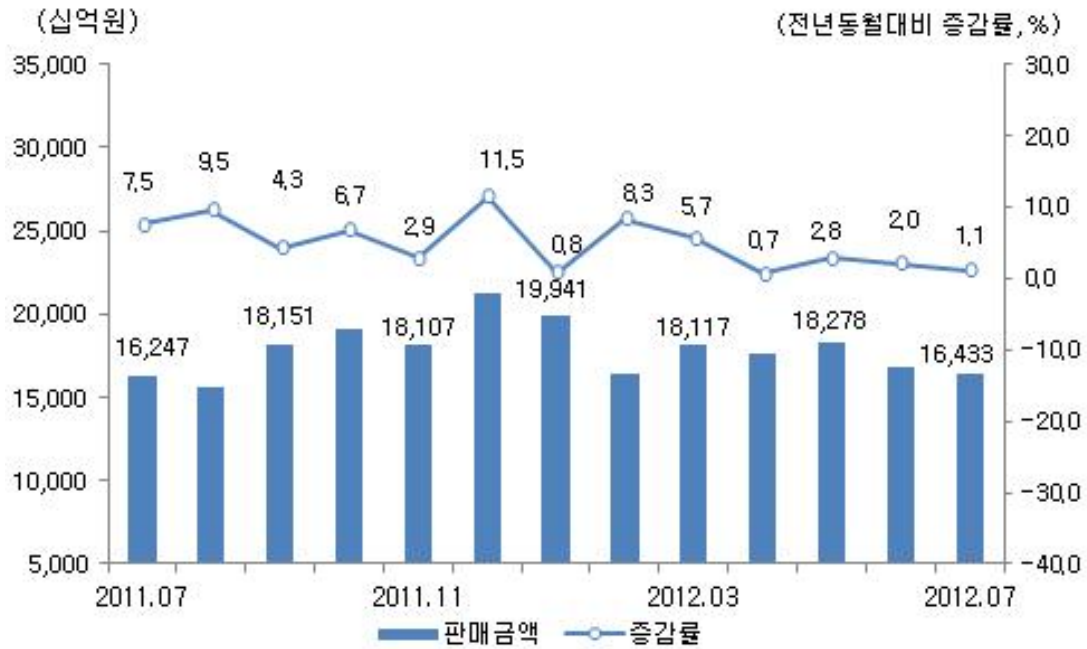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서울지역 대형종합소매업 판매액은 1조6,43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4.5% 증가, 대형마트는 3.2% 감소
- 품목별 판매순위는 패션용품이 37.2%인 6,120억원, 식품이 31.9%인 5,234억원, 생활용품이 19.0%인 3,116억원 순

■ 서울의 7월 백화점의 판매순위 1위는 패션용품, 대형마트는 식품

- 백화점 판매액은 9,500억원(57.8%), 대형마트 판매액은 6,934억원(42.2%)으로 집계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339.3억원이며, 대형마트는 93.7억원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4.2%)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6.5%)
-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5.4%인 5,824억원 판매,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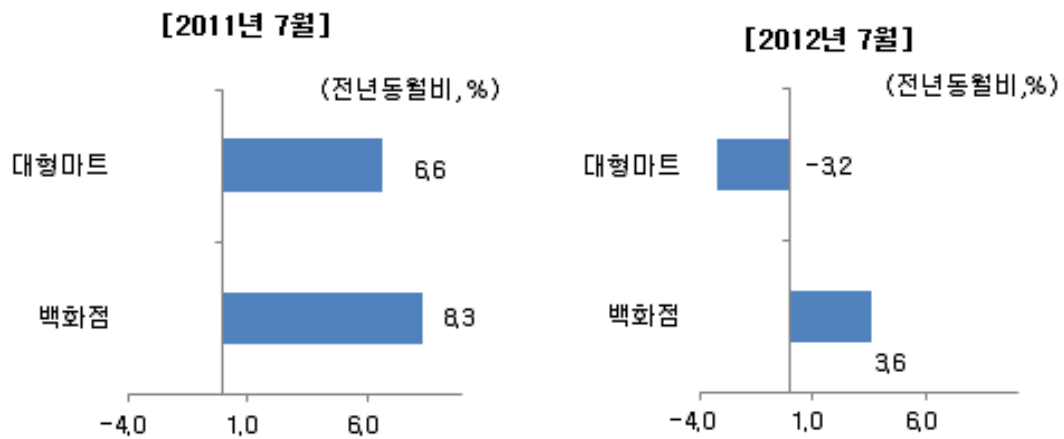
■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대형마트는 3.5% 감소
- 유형별로는 컴퓨터, 가구 등 내구재가 7.3% 증가,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1.2%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제·활·동·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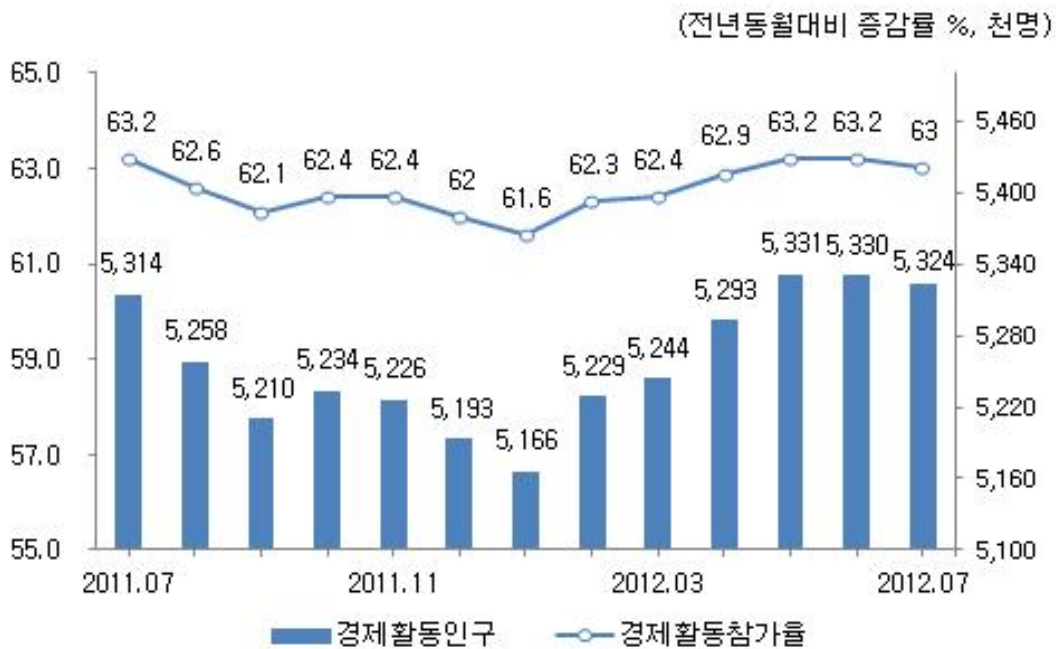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 서울의 7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15세 이상 인구는 8,4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명(0.6%)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3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2%)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1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1.2%) 증가

■ 전국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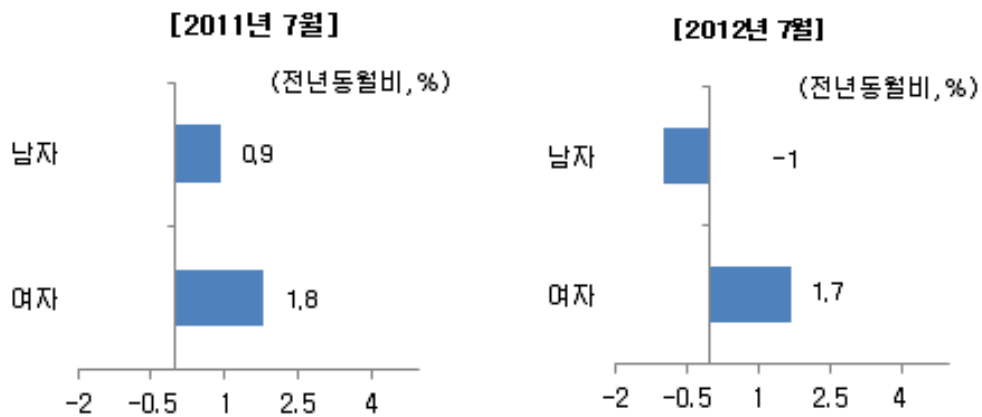
- 전국의 7월 15세이상인구는 4,162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1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9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8천명(1.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여자는 50.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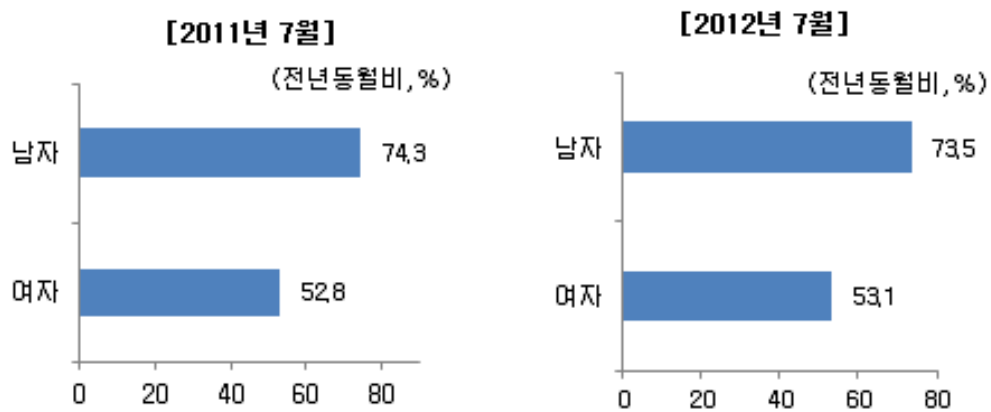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하락, 여자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96천명, 여자는 2,3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0% 하락, 여자는 1.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5%, 여자는 53.1%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8%p 하락, 0.3%p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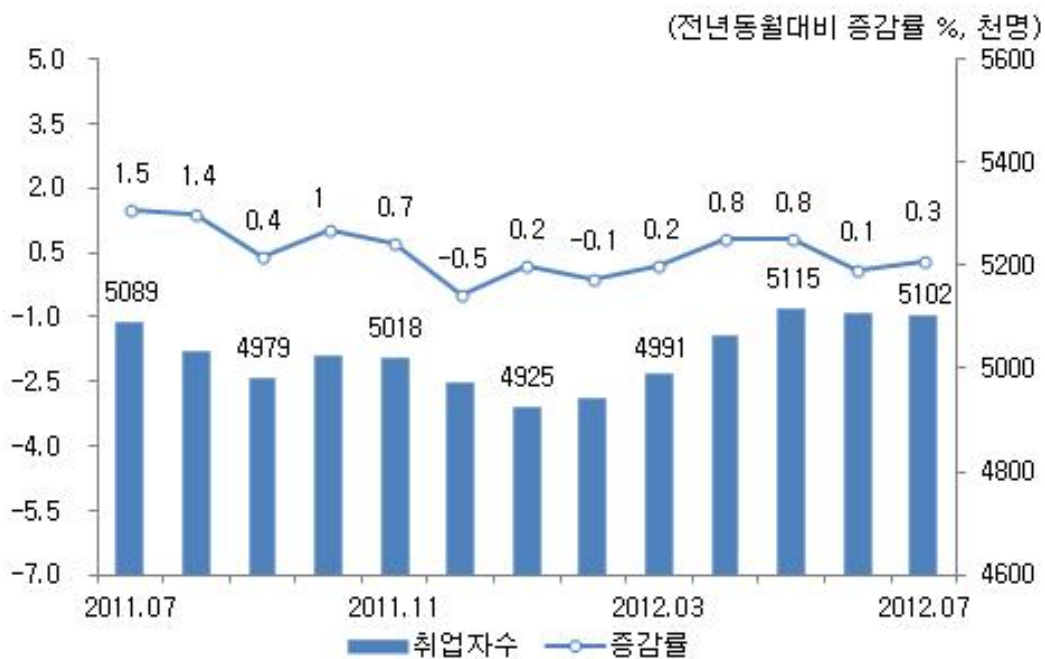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청년 취업자 수 6개월 연속 감소

■ 서울의 7월 여성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취업자는 5,10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0.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5천명, 여자는 2,2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6천명(-0.9%) 감소, 여자는 39천명(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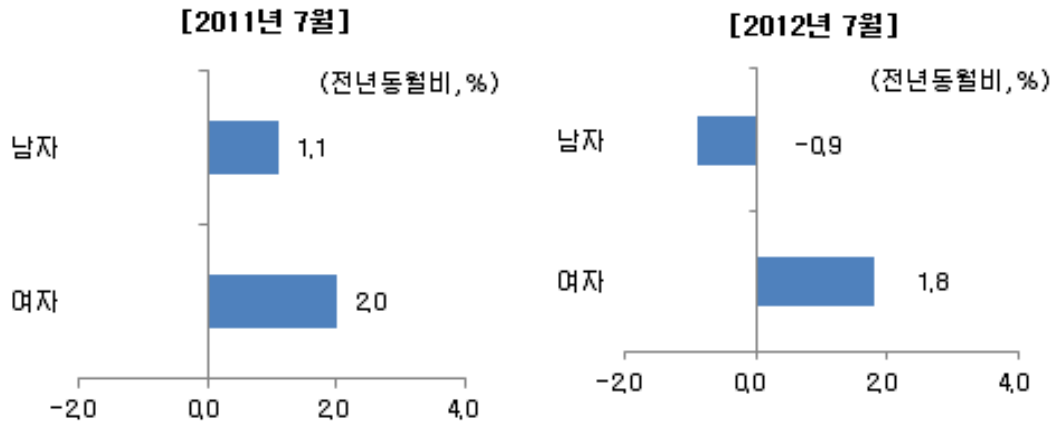
■ 전국의 7월 남, 녀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7월 취업자는 2,510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6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6천명(1.9%) 증가, 여자는 1,053만9천명으로 19만4천명(1.9%)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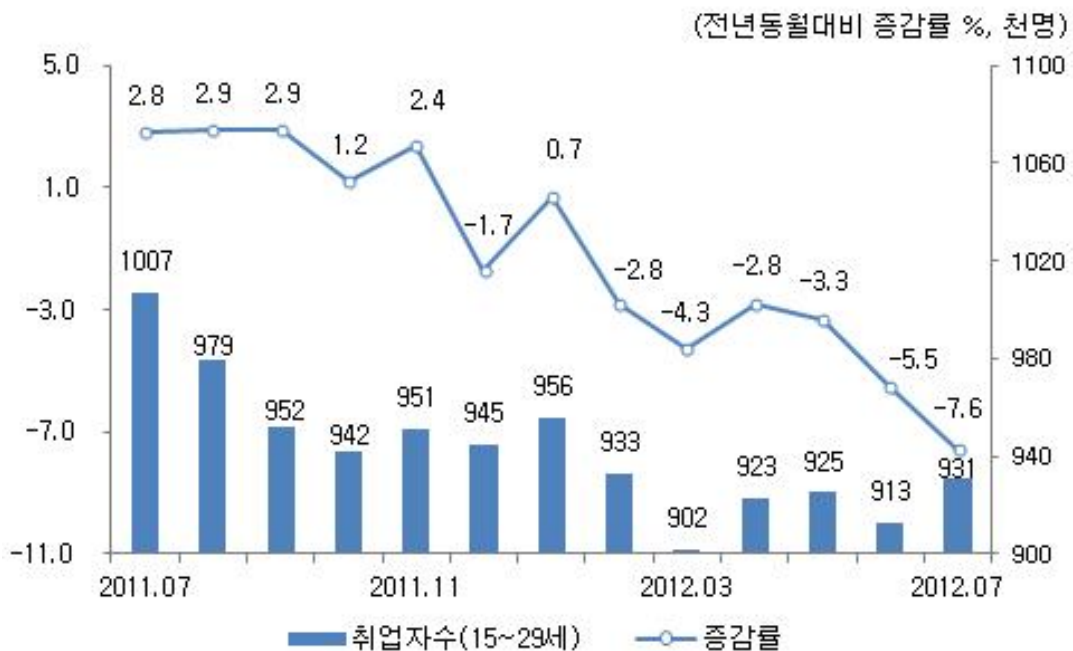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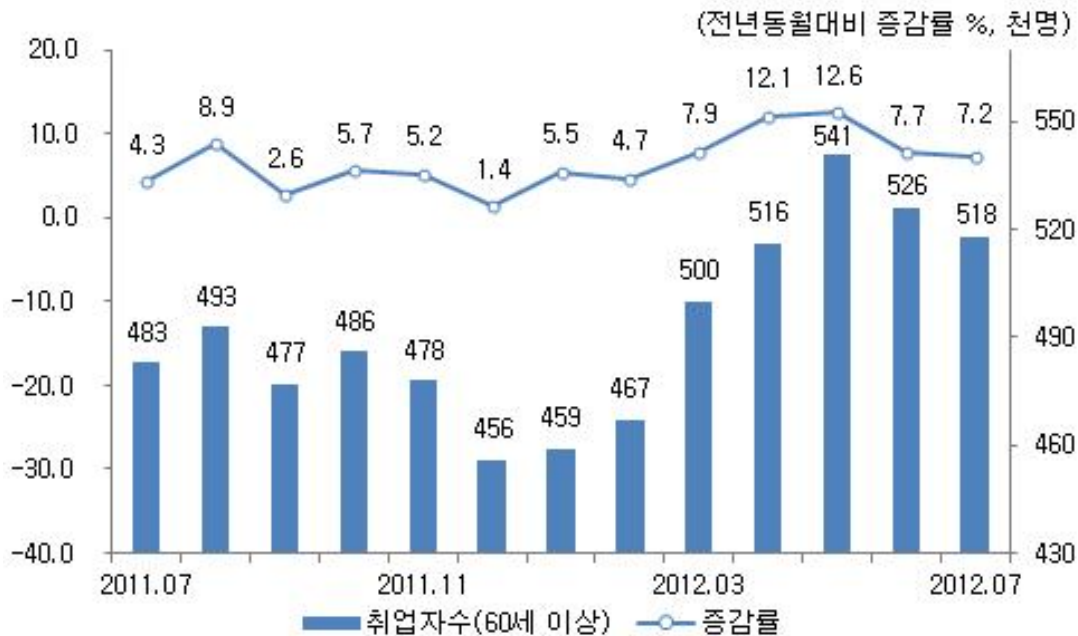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7월 청년층(15세~29세)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7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6%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7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2%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 건설업 감소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29.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1천명(3.0%), 전가운수·통산·금융업 12천명(1.4%)이 각각 증가
- 제조업 19천명(-3.6%), 도소매·음식숙박업 34천명(-2.5%), 건설업 9천명(-2.5%)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증가, 서비스·판매종사자 감소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천명(44.0%), 사무종사자 56천명(5.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천명(0.2%)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23천명(-1.9%), 관리자·전문가 25천명(-1.7%)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천명(0.0%)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0.4천명(-0.2%)이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94천명(4.1%)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70천명(-5.8%), 일용근로자는 9천명(-2.2%)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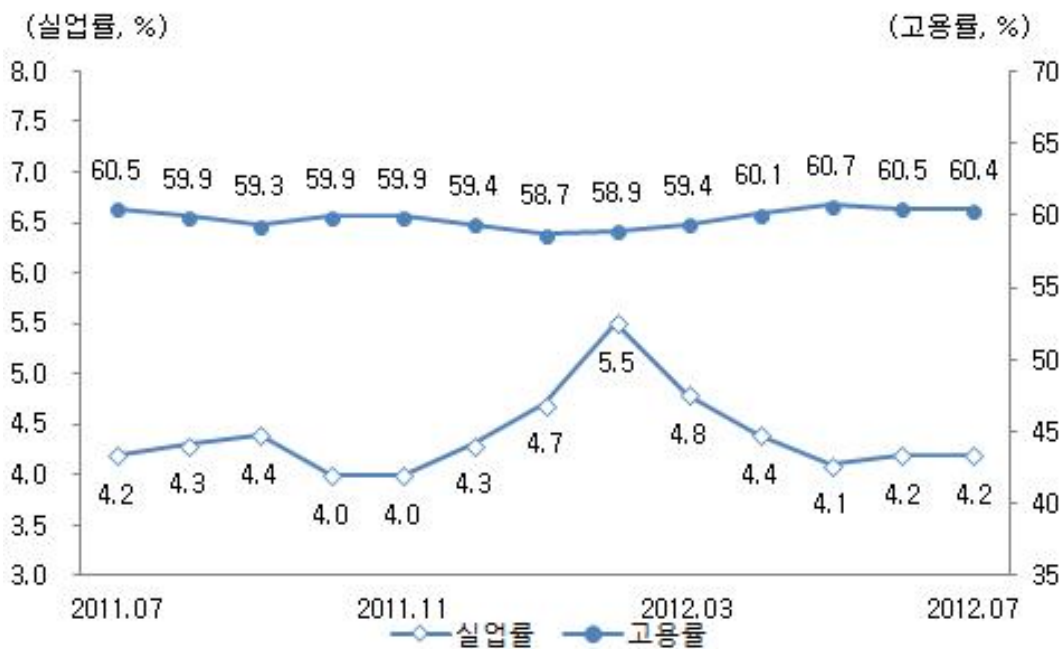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하락, 실업률 보합

■ 서울의 7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7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1%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한 반면, 여자는 51.3%로 0.4%p 상승
- 서울시 고용률은 60.5%로 전국(60.3%)에 비해 0.2%p 높은 수준

■ 서울의 7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보합,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7월 실업자는 2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2.0%)이 감소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자는 3.5% 보합
- 서울시 실업률은 4.2%로 전국(3.1%)에 비하여 1.1%p 높은 수준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5개월 연속 2%대 시현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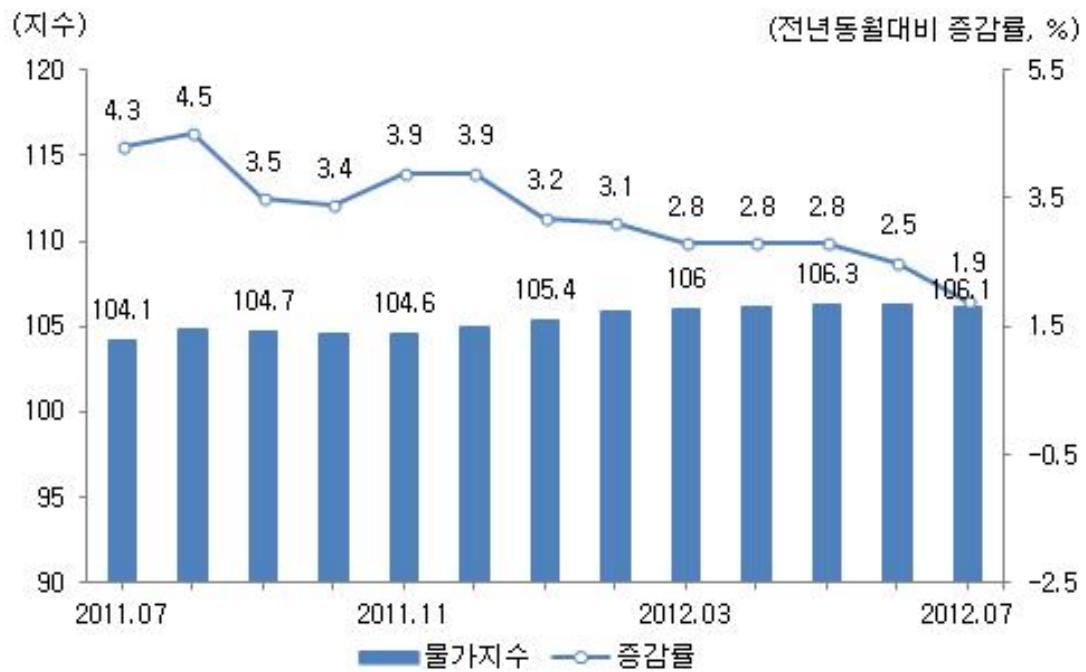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2010년=100.0)로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부문을 보면,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5.1%), 통신부문(-3.4%) 각각 하락하였으며, 그 외의 부문은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 0.6%, 공업제품 1.5%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그 중 집세는 4.2%, 공공서비스 1.5%, 개인서비스 0.6% 각각 상승

■ 서울의 7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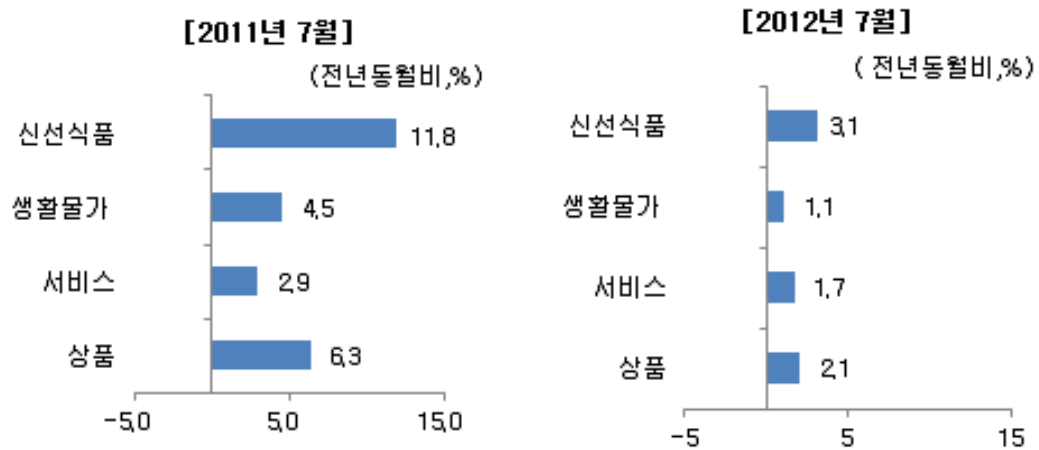
■ 전국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16개 광역시 모두 하락

- 전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2010년=100)로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 비로는 1.5% 상승하여 2009년 7월(1.6%) 이후 처음으로 1%대를 시현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인천, 대전과 울산은 0.1~0.2%씩 하락,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는 0.3~0.4%씩 하락
- 특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수원, 충주 등 15개 도시는 0.2%~0.3%씩 하락, 춘천, 천안 등 12개 도시는 0.4~0.6%씩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택·매·매·가·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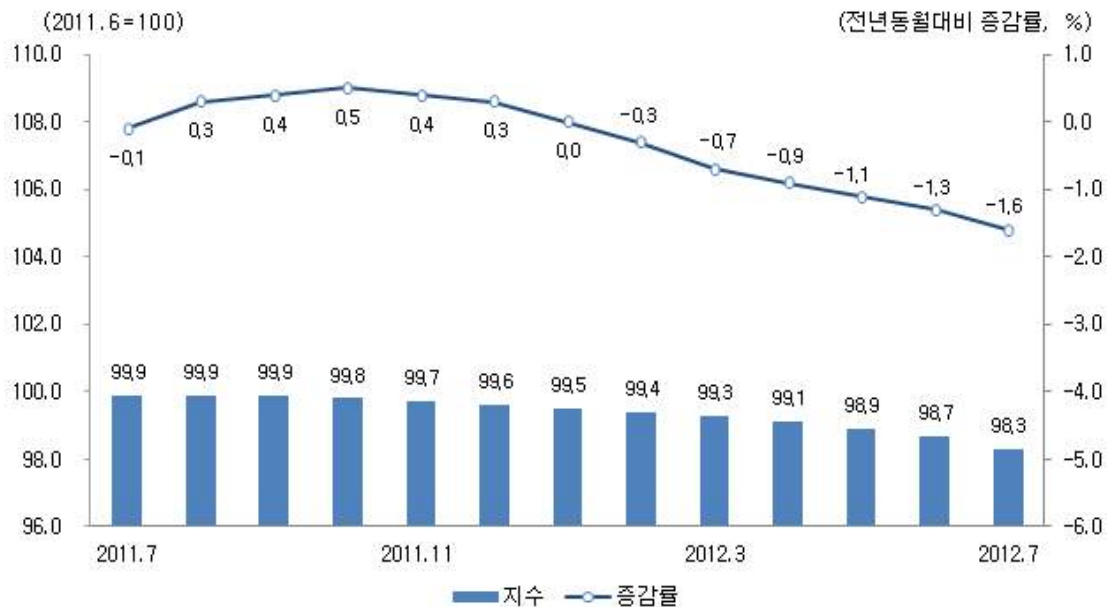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9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수요자들의 매매거래 위축세가 확대되며 종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4%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5%, 0.4% 하락

■ 전국의 7월 주택매매가격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으로 전환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만에 0.1% 하락
- 수도권은 하락폭이 확대되어 전월대비 0.4%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보합, 기타지방은 전월과 동일하게 0.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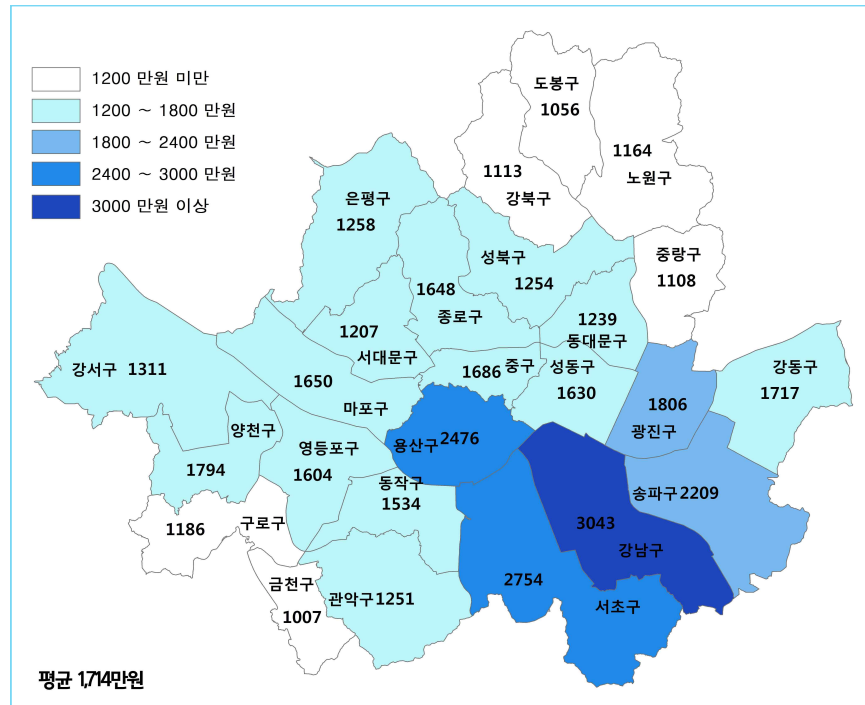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종로구에서 상승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 등에서 주로 하락하며 전월 대비 0.3% 하락**
 - 도봉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중대형의 매물 적체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소형도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크게 하락하여 전월대비 0.6% 하락
 - 노원구는 인근 별내지구 신규단지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기존단지의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물량도 적체되며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월대비 0.6%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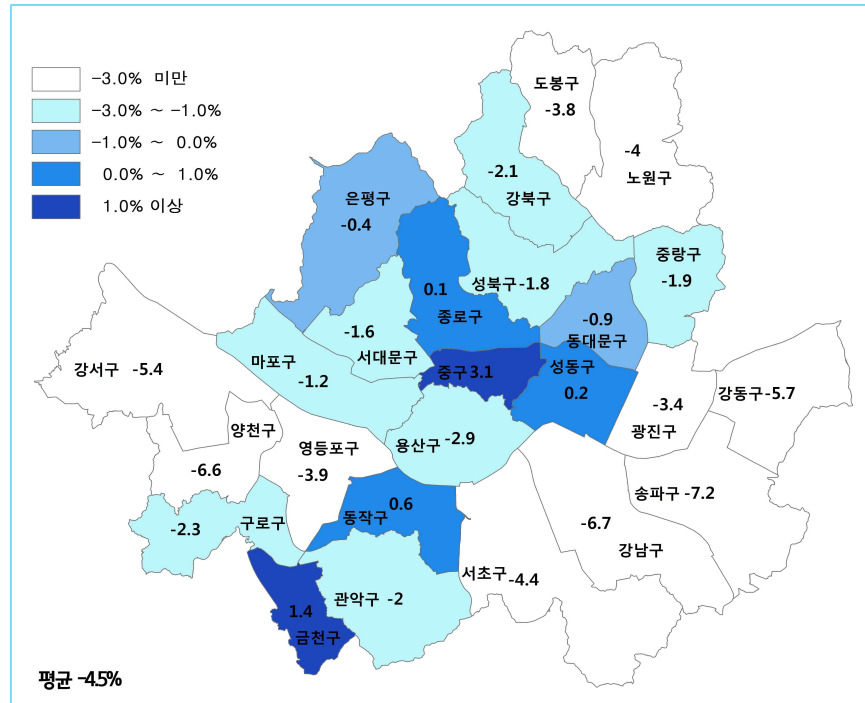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하락폭이 확대되며 전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하락**
 - 서초구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 금리인하 등 각종 규제완화에도 여전히 매수심리가 위축세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0.9% 하락
 - 강남구는 재건축 단지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 저하와 대출비용 부담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로 물량 적체가 심화되며 전월대비 0.7% 하락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14.1만원으로 전월대비(1726.4만원)대비 하락하여 17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6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3,043만원), 서초구(2,754만원), 용산구(2,476만원), 송파구(2,209만원), 광진구(1,806만원), 양천구(1,794만원), 강동구(1,71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7만원), 도봉구(1,056만원), 중랑구(1,108만원), 강북구(1,11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택·전·세·가·격 |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률 둔화되면서 3개월 연속 보합세

■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장마철 비수기로 한산한 모습을 이어가며 강남, 강북지역에서 모두 약보합을 보이며 3개월 연속 보합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1%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보합

■ 전국의 7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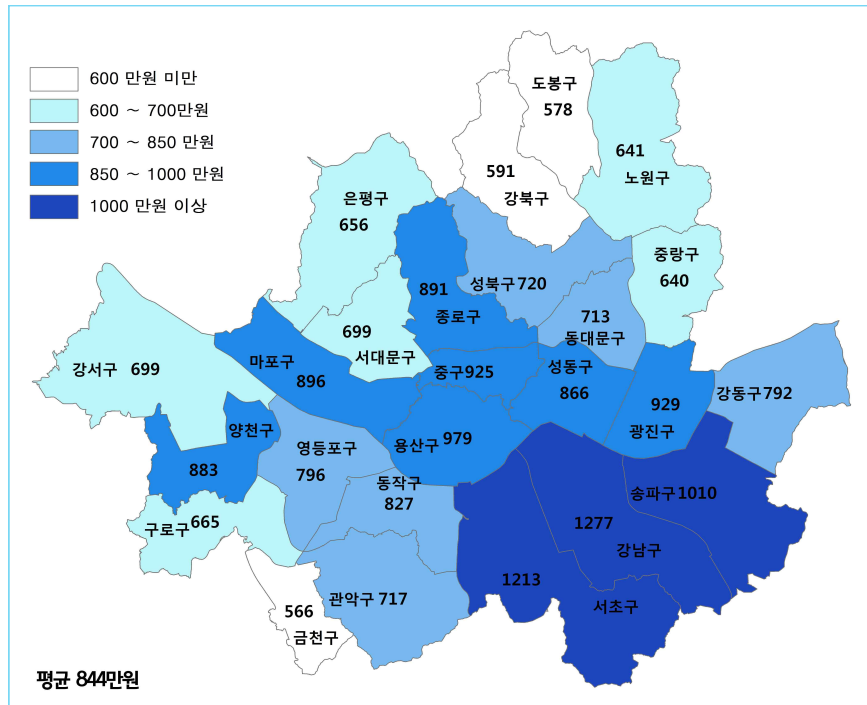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여름철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어 전월대비 0.1% 상승
- 광역시는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어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기타지방은 소폭 확대되어 전월대비 0.4%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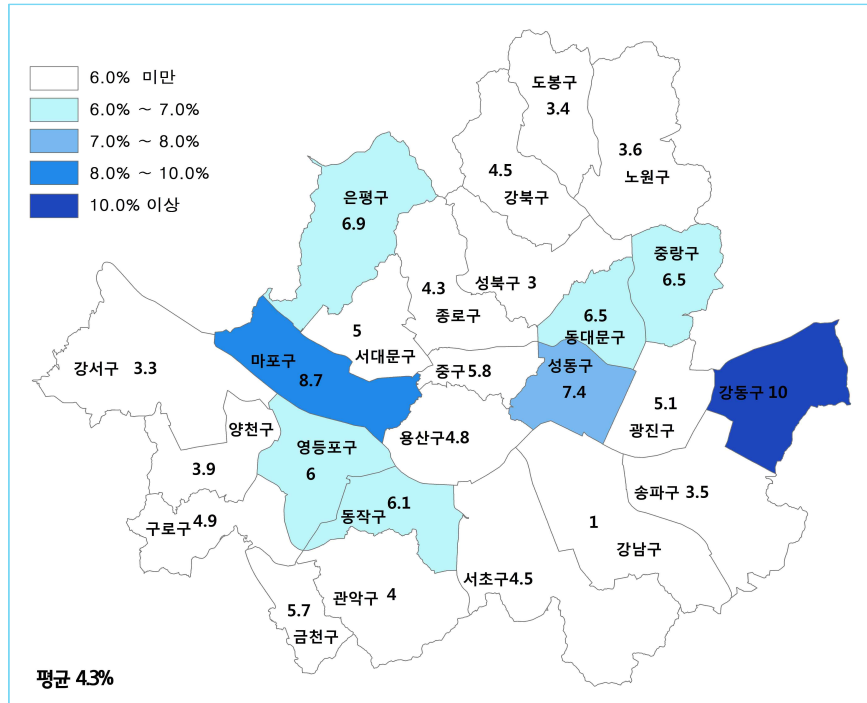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용산구와 성북구 등에서 상승하고 노원구, 은평구 등에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보합**
 - 용산구는 임대인들의 월세선호 현상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단독과 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3% 상승
 - 노원구는 인근 별내신도시 신규 입주예정자들의 매도물량이 매매거래 부진에 따라 전세공급 물량으로 더해지면서 물량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4% 하락
- **강남지역은 금천구, 구로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 강남구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금천구와 구로구는 인근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어 직장인과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역세권 인근 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두 지역 모두 전월대비 0.3% 상승
 - 강동구는 연초 재건축 이주 등으로 상승하였던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재건축을 앞둔 노후단지들의 전세수요가 급감하며 전월대비 0.6% 하락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3.6만원으로 전월대비(843.2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277만원), 서초구(1,213만원), 송파구(1,010만원), 용산구(979만원), 광진구(929만원), 중구(925만원), 마포구(896만원), 종로구(891만원), 양천구(883만원), 성동구(86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66만원), 도봉구(578만원), 강북구(591만원), 중랑구(64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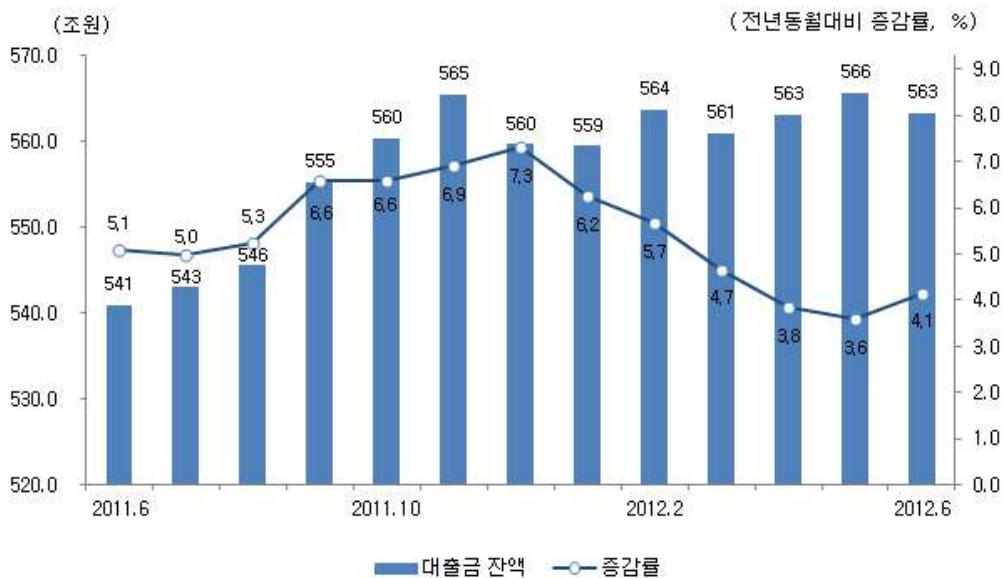
서울의 6월 은행의 전체 대출금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 증가

■ 6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6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3조 2,379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4,398억원(0.43%)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5조 2,142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8조 237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5%, 6.8% 증가

■ 6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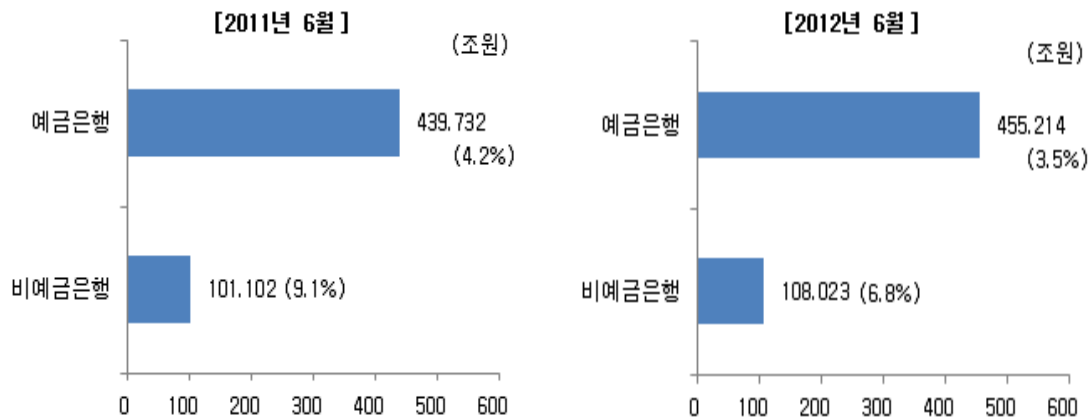
- 6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31조 3,659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7,068억원(0.19%) 소폭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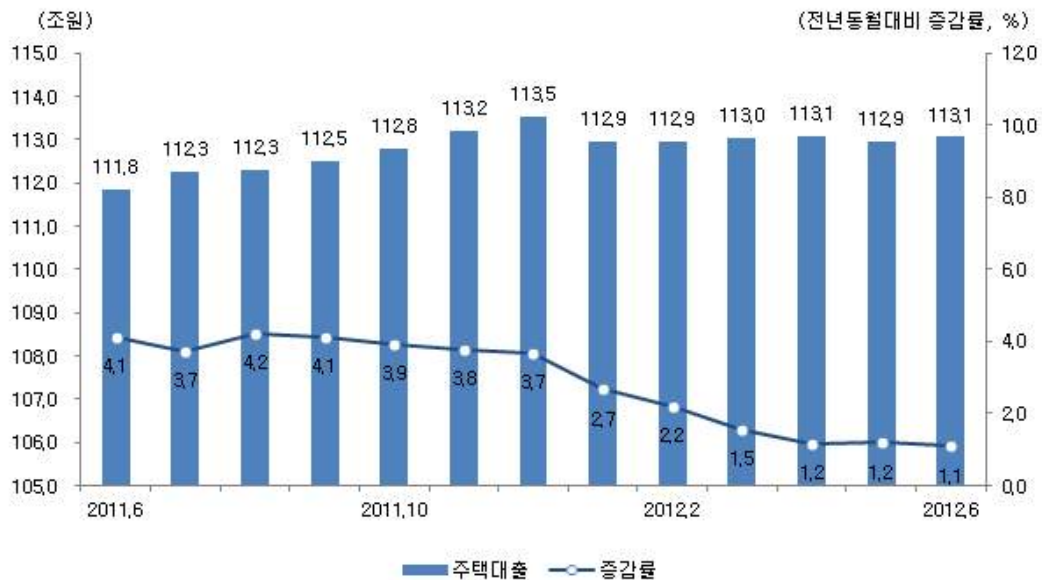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6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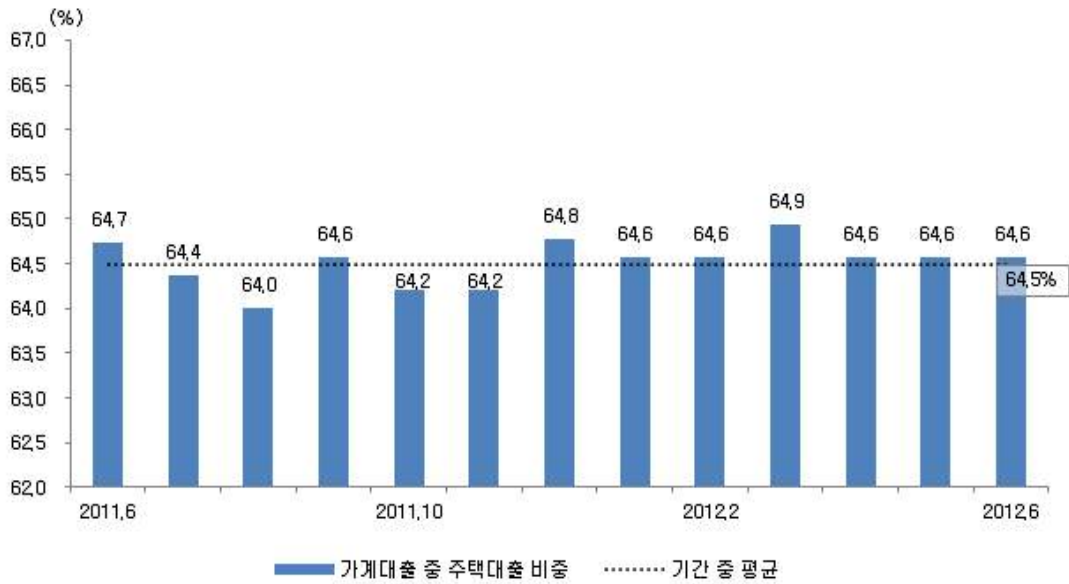
- 6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293억원으로 전월대비 125억원(0.1%)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3조 52억원(64.6%)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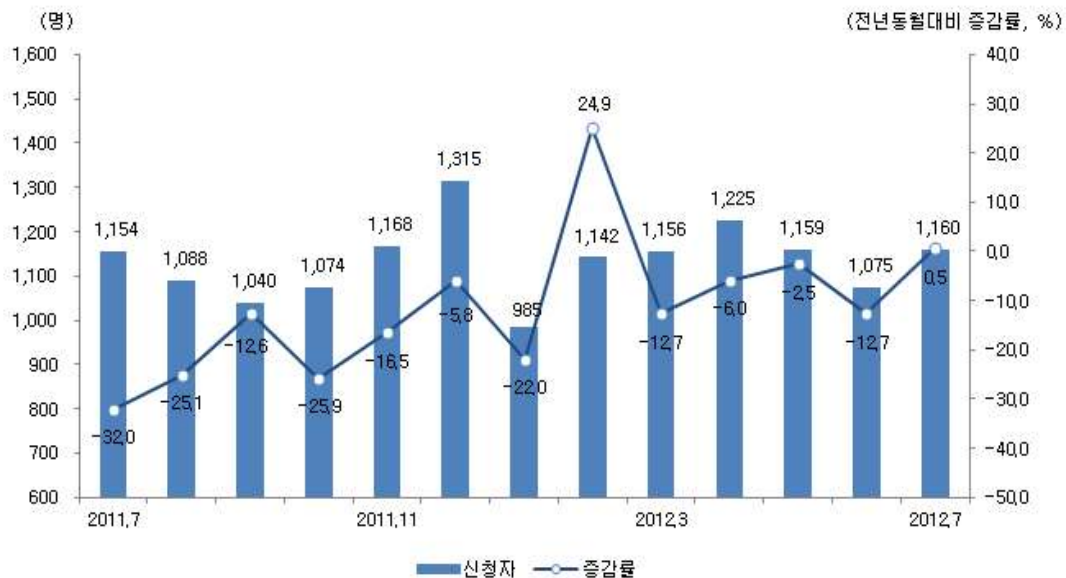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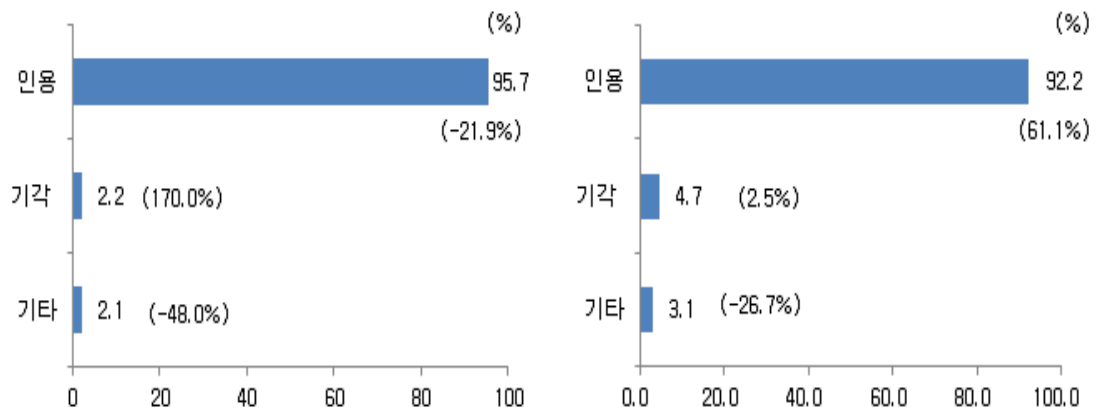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

- 7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60명으로 전월대비 7.9%,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2.2%로 전년동월대비 170.0%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7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7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273개로 전월대비 4.2%(91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8.5%(355개) 대폭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각각 13.2%(40개), 3.1%(53개)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5.4(7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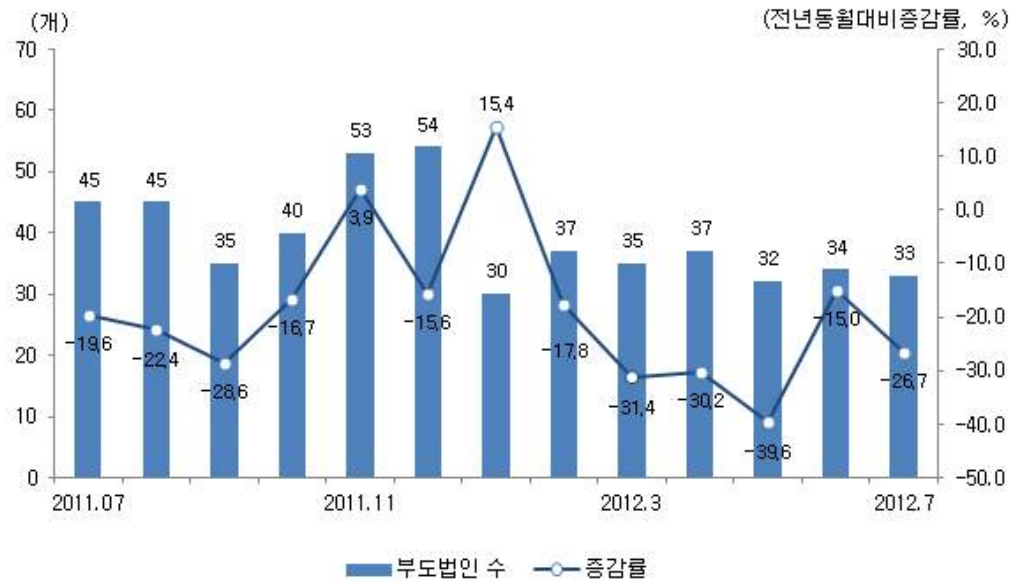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부도업체 수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3개로 전월대비 2.9%(1개), 전년동월대비 26.7%(12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각각 42.9%(3개), 21.4%(3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50.0%(6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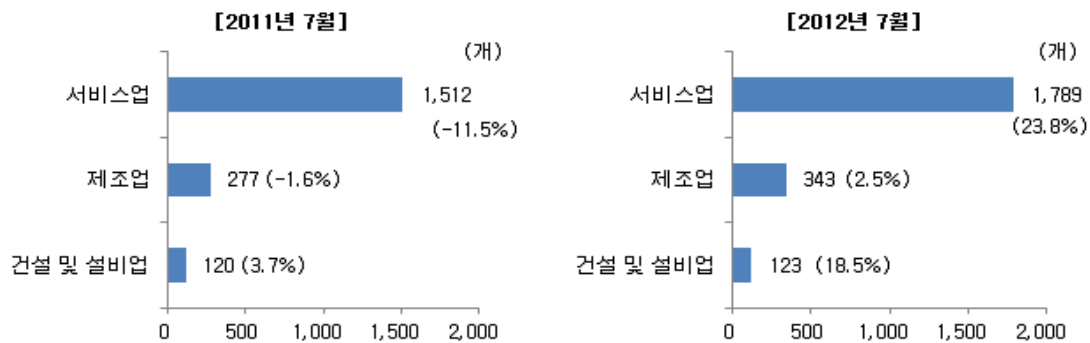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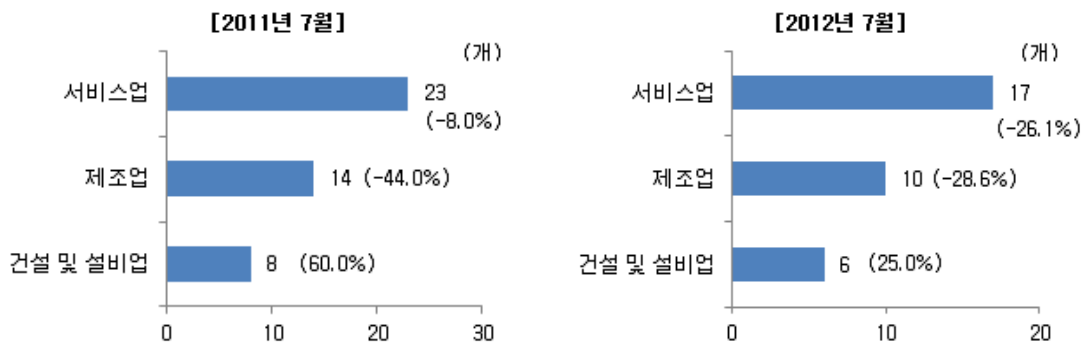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7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8.9배로 전월(64.2배)보다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7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감소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2,980건, 72,91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은 각각 5.0%, 14.6%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9.9%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16.4% 증가하였고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금액은 각각 5.7%, 18.9%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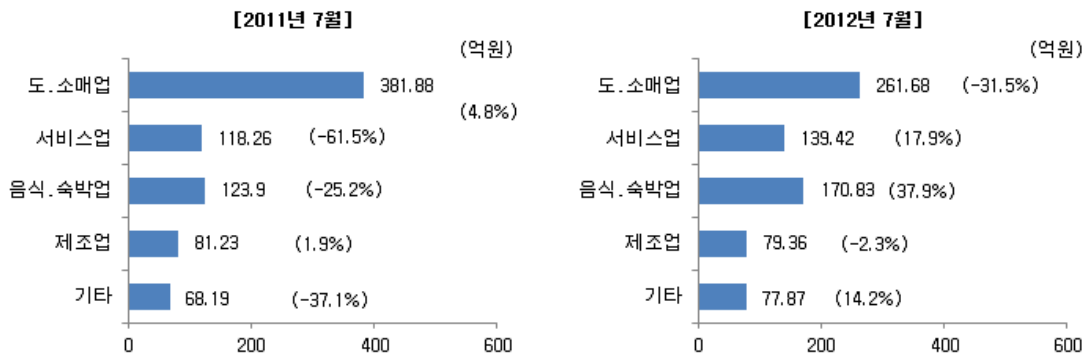
■ 음식·숙박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7월중 에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23.4%로 전월(21.4%) 대비 2.0%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19.1%로 전월(21.3%)대비 2.2%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음식·숙박업종은 24.8%로 전월(24.0%)대비 0.8%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은 22.4%로 전월(24.0%)대비 1.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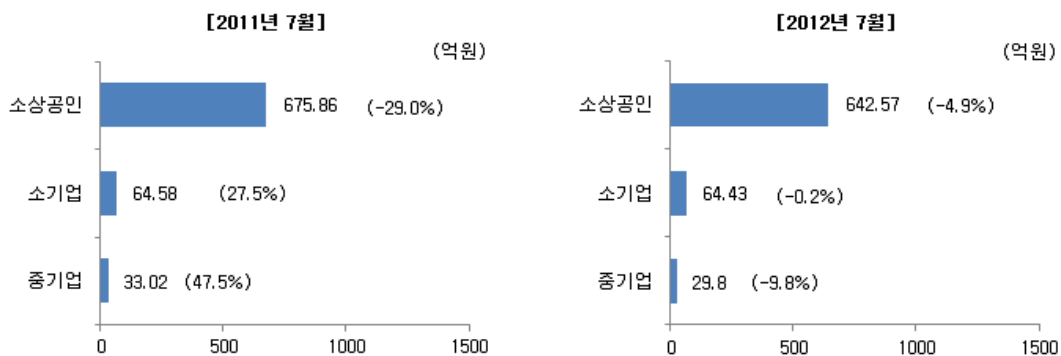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8.1%로 전월대비 5.6%p 증가하고 건수기준으로는 93.8%로 전월대비 1.3%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과 건수는 8.8%, 4.1%로 전월대비 각각 3.9%p, 1.3%p 감소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3.1%로 전월대비 1.7%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은 2.1%로 전월과 동일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7월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7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반면 수입은 96.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9%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4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하였고 수입은 418.9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4% 감소

■ 서울의 7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28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76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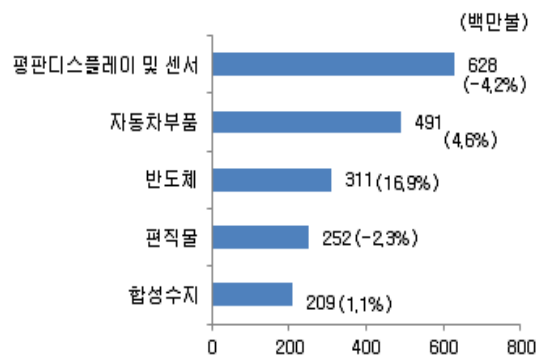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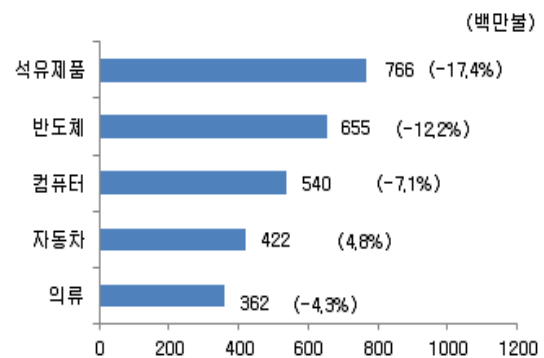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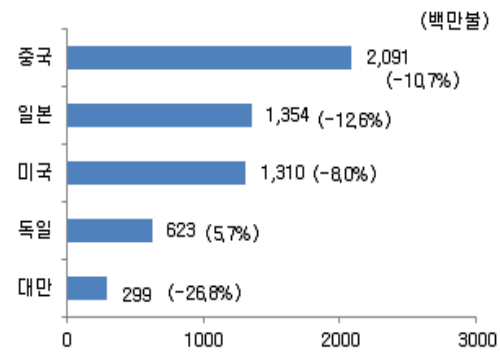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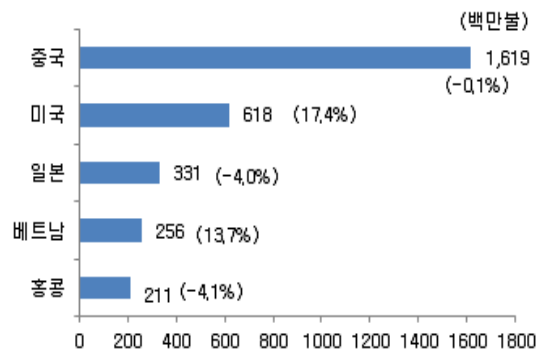
〈그림〉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7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1,61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한 2,091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서울의 7월 주요 FTA 대상국 수출 1순위 품목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 미국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135백만불, 수입은 항공기 및 부품이 264백만불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칠레의 경우 자동차 2백만불 수출, 동제품 25백만불 수입하였고 페루는 합성수지 2백만불 수출, 금은 및 백금 5백만불 수입 기록
-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입 모두 반도체가 21백만불, 115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인도의 경우 합성고무 24백만불 수출, 석유제품 81백만불 수입 기록

〈표〉 7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전년동기대비)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618,336	17.4	합계	1,310,457	8.0
	1	자동차부품	135,630	19.2	항공기및부품	264,275	136.2
	2	고무제품	70,566	31.7	기초유분	68,364	-7.1
	3	무선통신기기	67,319	7.6	농약및의약품	63,236	43.4
칠레		합계	9,150	-29.9	합계	61,069	-3.7
	1	자동차	2,523	-38.9	동제품	25,856	-24.1
	2	고무제품	1,991	15.2	육류	9,151	-28
	3	합성수지	920	4.5	제지원료	8,168	96.9
페루		합계	6,148	9.3	합계	8,485	20.5
	1	합성수지	2,088	375.0	금은및백금	5,301	1.0
	2	플라스틱 제품	739	38.2	아연광	729	52.1
	3	합성고무	416	33.1	수산물가공품	702	199.4
싱가포르		합계	69,881	5.3	합계	264,235	16.4
	1	반도체	21,314	-0.5	반도체	115,650	28.8
	2	정전 기기	4,103	963.3	컴퓨터	44,965	0.9
	3	석유제품	3,404	98.1	석유제품	18,232	632.5
인도		합계	113,538	-15.9	합계	168,825	-34.8
	1	합성고무	24,230	-25.6	석유제품	81,172	-49.2
	2	자동차부품	14,977	-14.6	기초유분	13,536	-19.2
	3	합성수지	12,578	-30.1	천연섬유사	9,392	-47.2